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 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한다.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는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본다. 또한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독자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부족한 독자, 언어 이해는 충분하지만 해독은 부족한 독자,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는 부족한 독자이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과 언어 이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독자는 독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기도 힘들다. 가령, 단어 인식은 잘하지만 글의 중심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은,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가 부족한 독자 유형에 해당하며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단순 관점은 글자를 단어로 인식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해 능력에 해독과 언어 이해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독해 능력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단순 관점에 따르면 추론하기는 언어 이해에 해당한다.
- ② 단순 관점은 해독의 발달과 언어 이해의 발달을 모두 고려하여 독자 유형을 나눈다.
- ③ 단순 관점에 따르면 독해 능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말소리 듣기 경험에 앞서 독서 경험이 필요하다.
- ④ 단순 관점은 해독과 언어 이해가 독해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밝혀 독해 능력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⑤ 단순 관점과 달리, 독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들이 있다.

2. [단순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독이 부족하여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루지 않았다.
- ② 독해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아 독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 ③ 독해 능력 발달에 있어 해독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 언어 이해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④ 해독 발달을 글을 통한 시각적 경험으로만 설명하여 청각적 경험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 ⑤ 해독과 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았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순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 같은 학생 A, B의 독해 능력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은 학생 A, B와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의 자료로 진행되었다. 아래는 학생 A, B가 수행한 활동의 결과이다.

- 소리 내어 단어 읽기 : 학생 A는 활동 자료에 있는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었고 한눈에 잘 식별하였다. 학생 B는 활동 자료에 있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 못하였고 한눈에 식별하지 못하였다.
- 중심 내용 파악하기 : 학생 A는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와 말로 들을 때 모두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학생 B는 활동 자료를 글로 읽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말로 들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다.

- ① 같은 학생 A가 해독은 발달되었지만,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언어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군.
- ② 같은 학생 A가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되었다고 생각하겠군.
- ③ 같은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 ④ 같은 학생 B가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군.
- ⑤ 같은 학생 B가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말로 들은 활동 자료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해독 발달 전에 언어 이해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인 성문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리 해석’이 법해석의 출발점이다.

무난하다. 성문법-법해석-문리 해석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문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문리 해석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 각 방법들의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하자.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다.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말아서 보증함’이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단순 예시이다. 빠르게 읽고 넘어가자.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어? 담보가 단순 예시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상세히 나오고 있다. 이는 담보가 이 지문에 주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지문에서는, 항상 예외를 주의하자.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하며, 원칙은 손해배상이다. 그럼 예외도 있지 않을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역시나 예외가 있었다.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를 바로 다 외우면서 갈 수는 없으니, 밑줄치고 넘어가자.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보 물권이 그 예이다.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 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 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 채권이 실현된다.

과년도 기출에서 부동산VS동산으로 차이점을 준 지문이 여러 있었다. 부동산만 나왔으니, 혹시 동산과의 차이점이 추후 지문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보자.

이때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금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 중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받는다.

또 원칙이 나오나, 다만 담보 물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먼저 배당받는다. 마지막까지 동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 예상이 틀린거고, 동산에 대한 의문점은 지워버리자.

(나)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채무라 한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보증이 ㉣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 계약이 아니다.

중요한 이야기이다. (가)에 있는 유상 계약의 조건을 보러 가보자.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다만 보증 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설명은 없고 채무자에 대한 설명만 존재한다. 이는 매우 수상하다. 원래 계약이라면 채권자, 채무자가 항상 존재해야한다. 이는 (가)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의 채권자 아닐까?

하지만 현실의 보증 채무는 다 이러한 않은 것 같다. 신의만으로 보증 채무를 저주는 사람이 있긴 하겠으나,,,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대가를 받고 보증을 저주는 것은 보증 채무가 아닌것인가?

㉠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라든가 마찬가지로

바로 나온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어도, 보증 채무라고 말해주고 있다.

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민법이 나왔다. 형법, 상법 등등 법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중요한 요건이 두가지 나왔다. 계약서와, 서명 혹은 기명 날인이다.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자.

이를 위반한 보증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 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 예컨대 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은 3년으로 간주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사업과 무관한 금전 채무, 호의로 한 경우 보호 제공, 보증 기간 명시되지 않았다면 3년 간주.. 다 외울 수는 없다. 우리는 밑줄치고 넘어가고 문제 풀 때 다시 넘어오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자. 한번 정리하겠다. 채권자<->주채무자(원래 채권, 채무 관계이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보증 계약이 체결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도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읽다보면 에? 하는 부분이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 증명해야 한다.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특약'이 보증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은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인의 경우, 채무 이행을 청구 받으면 거절할 수 없다.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 지문이 나온지 알 수 있겠다. 연대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너무나 손해가 크다. 연대 보증인에게도, 보증인을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가 해석 방법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먼저 풀고 -> (나) 읽고 풀자 정답 1번

- ①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가)는 문리 해석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 ②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고, (나)는 보증 계약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가)에서 그러한 내용을 보지 못했다.
- ③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가)에서 문리 해석에 대한 이야기와 사례로 '담보'가 나왔다.
- ④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나)는 보증 계약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밝히고 있다. (가)에서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은 나타나고 있으나, 대조는 상당히 애매하다. 대조라면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한다.
- ⑤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여 도출하고, (나)는 보증 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가)에서 법조문 의미를 유추하여, 도출하고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다 바로 못지우겠다.

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 ①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문리 해석에 대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 또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담보 물권을 가진다면, 예외로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④ 유상 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교환 대상 사이 값어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하자를 찾지 못했다면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러한 근거이다. 정답.
- 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적절하다.

6.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2번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는 문제가 나왔다. 많이 말했지만 먼저 생각해보자.
㉠의 이유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무언가 앞에 있었던 가장 적절한 것처럼, 한 문장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의 이유로는 보증 계약은 보증인<->주채권자 계약이다. 이는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생각했다. 다만 대가를 주고 받는 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주채무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계약은 당사자가 다르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선지를 찾으려 가보자.

- 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지말자.
- ②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 어? 이거다. 이거. 정답.
- ③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이 또한 아니다.
- ④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매력적이다. 보증인<->주채무자의 보증 계약으로, 보증인도 채무가 생겼다. 다만 이러한 채무가 보증인 자신의 채무라는 위당은 상당히 애매하다. 2번이 보이지 않았다면 4번 고르겠다.
- ⑤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7.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5번

이 또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이다. 연대 보증인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연대 보증을 지게 되면, 연대 보증인은 다 갚아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있었다.

- ①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 계약을 한 자이어야 한다. 뭔가 내가 찾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별 표치고 나중에 다시 넘어와보겠다.
- ②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문리 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있었다. 마지막 문단에 있던 점도 기억난다. 바로 찾으려 가보자. 다만 문리 해석에 의하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연대 보증인은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주요 특이점 이었다. 보자마자 틀렸다.

- ④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 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박수칠만한 선지이다. 너무 잘났다. 일단 천천히 살펴보자.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채권자라는 점을 알려주는 선지이다. 혹시나 지문에서 잡지 못했다면 여기에서라도 잡을 수 있었다. 연대 보증 특약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찾으려 가보니 연대 보증 특약은 보증 계약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대 보증 특약 역시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다. 채무자와 연대 보증 특약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이 올바른 생각이었다는 증거이다.
- 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아마 정답은 많이 잘 골랐을 것 같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3번

<보 기>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500만 원씩을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다.
대가 없이 보증 계약했다. 주의하자.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의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납품했으나 을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 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①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너무 적절하다. 하자를 알 수 있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 ②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계약의 목적인 목적물의 가치가 대금값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면 환불을 받을 권리는 없다.
- ③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을에게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다 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에이, 너무 쉽다. 당연히 연대 보증인이 아니므로 증명도 했고, 거절할 수 있다.
- ④ 보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 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미 보증 채무가 이행됐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보증 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지만 연대 보증 특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계약서 및 서명 날인 등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보증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병이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9. 문맥상 ㉠~㉥와 바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 ① ㉠ : 이루는
- ② ㉡ : 헤아려
- ③ ㉢ : 깨뜨리고
- ④ ㉣ : 이루어지려면
- ⑤ ㉤ : 바로잡고 정답.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선형 열팽창 계수의 식이 나왔다. 식이 나오면 선생님은 바로 옆쪽에 쓰고 가는걸 추천한다. 선형 열팽창 계수 = 길이 변화율/온도 변화량 어? 뭔가 이상하다. 과학에서 변화율, 변화량은 다른 개념이다. 변화율은 퍼센트 단위이고, 변화량은 바뀐 양의 값이다. 뭔가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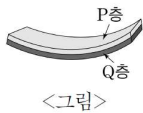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바로 나온다, 변화율과 변화량의 개념 차이가 나왔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양수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자, 인바는 알루미늄보다 열팽창 계수가 낮은 것도, 밑줄치고 넘어가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열팽창 계수가 크면 더 많이 팽창한다고 한다. 다만 위에는 인바가 알루미늄에 비해 열팽창 계수가 작다는 점을 강조했으니, 우리도 작았을 때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즉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을수록 많이 팽창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 돌아온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다. 이는 바로 이해해볼 수 있다.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해보자.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뭔가 많다. 다만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정도만 밑줄치고 넘어가고 싶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이다.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다.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심하게 휘어진댄다. 생각해보자, 곡률이 높을수록 당연히 많이 휘어질 거다. 곡률과 곡률 반지름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또한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더 휘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이해해도 되고, 밑줄치고 넘어가자. 선생님은 온도변화는 잘 모르겠으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면 왜 더 휘는지 이해할 수 있겠다.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액추에이터가 나왔다. 요즘 뜨는 로봇 산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다만, 굳이 중요한 말들은 없는 것 같다.

띠가 휨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최대 이동 거리는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최대 곡률=최대 이동 거리=힘 소멸 시점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이 짧다.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가자.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 5번

- 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물체의 길이가 변화면 당연히 부피는 변화는 것이 아닐까...
- ②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변화량, 변화를 개념을 주의했어야 했다. 두개 다 변화량 개념은 아니었다.**
- ③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 더 많았다.
- ④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액추에이터에 대한 문단이 뜬금없이 나왔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찾으러 가보자.**
- ⑤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마지막 문단에 나온 내용이다.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정답.**

11.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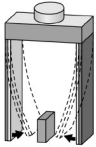
추론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지금까지 다수의 문제는 추론하면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였다. 자세히 살펴보자.

- 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당연히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이는 열팽창 계수의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②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을수록 더 안정적이었다. 인바가 계수가 더 작으므로, 더 안정적이다. 또한 안정적이지 아닌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미 문단을 읽으면서 포커스 했던 내용이었다.**
- ③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휘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다. 다만 원가 이상하다. 온도를 내리면 휘단다. 팽창에 대해 생각해보자, 수축은 온도가 낮을 때에 일어나고 팽창은 온도가 높을 때에 일어난다. 그렇다면, 온도를 내리면 휘지 않을 것이다. 정답.**
- ④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식으로 생각해보자. 다만 선생님이라면 이 선지는 제일 마지막에 볼 것 같다.**
- ⑤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길이가 긴 띠 경우 더 많이 움직인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1번

<보 기>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선형 열팽창계수 차이가 b가 더 크다. 이는 b가 더 많이 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계를 만들었다. a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계 A이고,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계 B이다. 온도 T_0 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_1 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왜? B가 더 많이 휘니까.

그런데 T_0 에서 T_1 보다 높은 온도인 T_2 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은, B도 여전히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B가 여전히 휘고 있어서 힘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점이다.**

- ①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보다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A는 당연히 T_2 에 잡을 수 있으므로, 더 곡률이 클 것이다. 다만 B 역시 계속 잡을 수 있으므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곡률 역시 커질 것이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정답.**
- ②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B가 더 많이 휘므로, 곡률 반지름이 더 작을 것이다.**
- ③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반응 완료 시간은 같다.**
- ④ T_0 에서 T_2 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B의 차이가 더 크므로, B가 더 크다.**
- ⑤ B와 달리, T_2 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힘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 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a가 더 안정적이므로, 민감도는 더 작다.**

13.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 1번

- ① ㉠ : 그는 이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를 얻었다.
㉡ : 그는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 ② ㉠ : 그는 친구의 도움에 용기를 얻었다.
㉡ : 곧 그에게 발표할 차례가 돌아온다.
- ③ ㉠ : 그는 열심히 일해 지금의 결과를 얻었다.
㉡ : 그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왔다.
- ④ ㉠ :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얻었다.
㉡ :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 ⑤ ㉠ : 그는 가족의 열렬한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 : 우리 부서에 적은 돈이 몹으로 돌아왔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 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A]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15.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 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16.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